

삼성그룹이 계열사 임원명의 차명계좌 1000여개를 이용해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운용해왔다는 주장이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증권 및 전산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120여개의 차명계좌 계좌주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이 달 말이나 내년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은 시민단체의 요구와 대선 및 내년 총선과 맞물린 정치권의 이해를 두루 수용한 형태로 국회의결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배제한 채 합의되었다. 대한민국 대표재벌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의혹을 조사하는데 삼성과 권력층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특검은 경제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제재에서 기업의 과거 활동을 특검을 통해 살살이 들추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는 동정론이 제기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삼성과 '책임지는 부자들'

되기도 한다. 또한 대선 한복판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법치 국가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의 20%이상을 담당하는 국민기업이다. 그러나 삼성의 재산과 경영권 세습방법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 이전회 회장의 자식에 대한 증여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삼성증권도 이

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 증식 과정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원 전환사채발행,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지분거래 등 불법 상속 의혹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득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리치 앤드 페이머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부자나 유명한

이 자신의 성공담과 함께 어마어마한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미국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거부들의 재산축적과정에 박수를 보내고 아름답고 웅장한 재력을 감상하며 부러워한다. 한편 부시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폐지에 대해 많은 부자들이 앞장서 반대한다고 한다. 빌게이츠의 아버지 게이츠 시니어와 워렌 버핏, CNN의 테드 터너, 폴 뉴먼 등이 결속한 '책임지는 부자'라는 단체는 상속세 및 주식배당소득세 폐지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재벌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총수는 왜 존경 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삼성에 대한 비자금 특검이 국가와 기업의 대의신뢰도에 타격을 주어 스스로 경쟁력을 잃게 되거나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특검이 정치적인 이해와 논리로 해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특검이 국민에게 모든 의혹을 낱알이 밝혀주는 동시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윤리경영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는 건강한 사회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학교나 공공장소 등 공공영역을 종교로 오염시키지 말라. 광고육체계를 종교 강요로 일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식회의, 공공행사, 방송출연 등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행위나 종교언급을 삼가하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들어 있다. 그가 공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공인하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를 지배하려 들지 마라. 민주화된 사회란 권력이 분산되어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정치권력과 종교권위가 적절한 긴장상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사회일 것이다. 기독교마저 내려놓아야 할 기독교계가 권력과 밀착할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 자체가 되기를 시도하는 듯해 우려된다. "망치를 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듯, 총을 가진 포수에게는 모든 문제가 사냥감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종교의 권력화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겠지만, 과도한 힘은 타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독이 되어 부패하고 몰락하는 지름길이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타종교인들을 의식하지 않는 기독교의 독선적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상대의 고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식해 놓은 근본주의의 탑을 벗고 전통종교와 공존할 줄 아는 유연한 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기독교의 대변신을 기대한다.

불자의 눈

어린이 포교 지도자들의 '희망'

올 한해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 지난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교원이 관련된 정책을 세운데 따른 성과다. 관련 예산의 부족을 염려한 뜻 있는 스님들이 적지 않은 성금을 내기도 했다.

12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국의 어린이포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전진대회'를 열었다. 포교원이 개최한 행사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종단의 의지가 현장의 지도자들에게도 전달되어 미래 불교 희망시기에 힘써주고 발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정보와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내 놓고 다른 지도자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담을 귀 기울여 들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했다고 한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상상하기 크다. 각자의 역할을 깨닫고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 모드에 파란불을 켜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돌아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내년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본지도 올 한 해 동안 '새싹불자들 키움시대'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활동 현장과 포교 마당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한 해 동안 추진하고 가는 정책 사업이 아니다. 불교가 있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새해에도 이 분야의 정책이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

모든 사찰 재정공개 해야 한다

서울 봉은사가 올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신도들에게 공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계의 다른 사찰들도 재정 공개를 선언하거나 이미 공개해 온 사찰들도 그 효과와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찰의 재정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찰의 재정 구조는 신도들의 시주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주금의 사용 내역이 신도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주금의 공개 보다는 무주상 보시의 공덕을 훨씬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무주상 보시와 사찰의 재정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습이 유지되었던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알릴야 할 책임을 가진 쪽에서 알릴 의사가 없고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진 쪽에서도 알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불이켜 보면 불교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지나치게 권력화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적 비리다. 이 가운데 돈과 관련한 비리는 '시주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쓴 승단과 시주단 할 뿐 그 외를 묻지 않는 신도들의 잘못이 더해진 결과였다.

이제 대형 사찰들의 재정 공개 의지는 전체 사찰의 의무 사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일탈 의무'와 '알 권리'가 실현될 때 한국불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9. 기독교에 바란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패거리문화 벗어나 사랑 받는 종교로 거듭나길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이해와 관용은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배타성과 독선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1월 23일 '한국언론포럼'과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연)'이 공개토론회를 열었을 때, 기독교의 폐해에 대한 반기연 측의 비판은 거침이 없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기독교 구절을 잠깐씩 상기시키면서 "종교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타종교를 마귀나 사탄이나 공격"하는 물상식을 따지기도 했다. "세금 한 푼 안 내며, 임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뒤로는 물결에 환안이 되고, 천당에 대한 환상과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번갈아 자극하여 복을 파는 종교업자들의 거대한 착취의 구조망"이라고까지 몰아세우고, "공공적인 장소에 모인 수만의 군중이 사찰이 무너지라고 통성기도를 하는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고 선언했다.

반지성적이고 공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올

여름 샘물교회 아픈 선교단의 피랍사태로 갑자기 국민의 감정이 증폭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동안 외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종교평화는, 불교라는 관용의 종교가 큰 세력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편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민주화·투명성 등 사회개혁에 집중되어 왔던 덕분에 종교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어 수면 밑에서 잠겨 있었을 뿐, 이미 수십 년 동안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는 말이다. 지난 10년 간 개신교인 수 감소의 의미와 함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독특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 지구상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 24개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 만 45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해외파견 선교사 수가 많은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하다. 그러나 양적 팽창은 그 덩치를 감당할 만한 질적 성숙이 동반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계에 간곡히 바란다. 첫째, 불교를 폄하하지 말라. 불교는 그런 저

급한 종교가 결코 아니다. "20세기 가장 큰 사건은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이라던 아놀드 토인비, "세계적인 종교 중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라고 갈파했던 철학자 야스퍼스, "현대과학에 부응하는 종교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던 아인슈타인 등 20세기 최고의 석학들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종교이자 자신의 뿌리이기도 한 불교에 대해 무지한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종교사회 지도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노골적인 종교차별을 중단하라. 수년 전 한 일간지의 인터넷 토론마당에 "한국이 세계 최고로 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장사하고 쉴새없다면 '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 쓸수했던 기억이 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최근 10여 년간 더 심해졌다고들 한다. 여기서 '민는 사람'이란 개신교인을 지칭하는데, 그들의 '종교차별'에 질렸다는 얘기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감·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까지 당하게 하는 '종교패거리문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 (택배비 포함)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명 종목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체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 무리할 운동은 하라 팔꿈치 L보통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찮지만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편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통이 와서 불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바라주셨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이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니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할 운동은 하라 팔꿈치 L보통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찮지만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편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통이 와서 불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케어크림을

신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열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 연구가 잇몸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특허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2일 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낍니다. 이 치약은 사용후속 치아가 윤곽을 내며 하얀 이로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